

4·15 총선 '범진보 대 범보수' 사활 건 총력전

정권 중간평가·대선 전초전...여야 '1당·과반' 각축 '코로나19 블랙홀' 속 준연동형 비례 놓고 대결도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의회 권력을 재편하는 의미를 넘어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선거구에서 서서히 '결전모드'로 바뀌고 있다.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 '정부 지원론' 대 '정부 견제론'을 둘러싼 대결이다.

특히 47개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의 대결도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양 진영은 각각 비례정당 출범으로 승부수를 띄운 상태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정권심

판론에 맞서 야당 심판론을 부각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자 '코로나19 극복'을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

이번 총선이 정부·여당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이 최상의 선거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통합당은 현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등을 전방위로 공격하는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대어 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정권심판론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정부 비판론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고민이다.

여야 정당은 '혁신공천', '인적쇄신'

등을 전면에 내세운 공천경쟁도 벌어왔다. 지역구 후보 공천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고, 현재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한창이다.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서 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못지않게 비례대표 선거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확정된 비례대표 후보를 비례연합정당에 파견, 후순위에 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과적으로 '통합당의 짝수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점은 고민이다.

통합당은 지난해 말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민생당은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견제론'을 내세워 표심을 파고든다는 목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의당은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통해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표다. 독자노선을 고수해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 대표 후보만 내기로 했다. 이를 놓고 사실 상 통합당과 '선거연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강병운 기자

문 대통령,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염병 사유 첫 지정... "복구비 50% 국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분 이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제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연합뉴스

통합당, 광주·전남 후보 기근...6곳 확정

21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후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인 4년 전 총선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당선되는 등 곳곳에서 선전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당세가 크게 위축된 모양새다.

15일 미래통합당 광주전남 시·도당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 18곳 선거구 가운데 광주 2곳과 전남 4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현재 공천 후보자를 살펴보면 광주 서구갑에는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북구갑은 범기철 호남의병연구위원장 2명이 단수로 확정됐다.

전남은 목포시 황규원(주)캐릭터콘텐츠문화진흥원 이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천하람 풀은보수 대표, 여수를 심정우 전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나주·화순 최광재 영화감독이 후보로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광주 2곳을 제외한 광주·전남 16곳에서 공천장을 수여한 것과 비교하면 출발부터 초라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지난 4일에 이어 12일부터 호남 전 지역에서 후보자를 추가 모집 중이다.

후보가 공석인 호남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 1,500만원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정근산·황애란 기자

광주서 정의당 6곳·민중당 3곳 출격

4·15 총선에 정의당과 민중당도 총력전을 펼친다.

1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에서 정의당은 6명, 민중당은 3명이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다. 비례대표는 정의당이 2명, 민중당 1명이 배정됐다.

정의당은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의석수인 20석을 목표로 한다. 광주는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려고 했으나 8개 선거구 중 6곳에 후보를 확정했다.

동남을 최만일 동남구위원장, 서구를 은유중전 서구지역위원장, 북구갑 이승남 북구지역위원장, 북구를 황순영 여성위원장, 광산갑 나경재 광주시당위원장,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이 도전한다.

비례대표는 강은미 전국위원이 비례 3번, 문정은 전 정의당 부대표는 청년비례 후보로 11번에 배정됐다.

민중당은 옛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진보정당'을 강조하며 호남의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광주는 3명이 지역구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 서구갑은 김주엽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북구을은 윤민호 광주시당위원장, 광산갑 정희성 공동대표가 출격한다.

비례대표는 한국 정당사 최초로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1번으로 배정했다. 지난 2-4월 16만명 선거인단 모집을 거쳐 광주 송정초등학교 급식조리사인 김해정씨를 비례 1번으로 선출했다. /황애란 기자

민주 비례대표... 김홍걸 4번·최희용 20번

연합정당 소속 출마 후 복귀 수순 밟을 듯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광주·전남 출신의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최희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최혜영(40) 강릉대 교수, 2번에 김병주(58)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각각 선정했다.

3번에는 노동분야 전문가인 이수진(50) 최고위원, 4번 김홍걸 민족화해의회 비상임위원, 6번 전용기(28)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7번 양정숙(57)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8번에 국제해협실현로(이터·ITER) 국제기구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3) 박사 각각 뽑혔다.

제한경쟁분야인 9번(취약지역)과 10번(당무발전)에는 각각 정중숙(52)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정지영(48) 서울시장 사무처장이 선발됐다. 이어 이소현(37)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11번, 권지용(32)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12번, 박명숙(60)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은 13



김홍걸

최희용

번을 받았다. 또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14번), 강경숙 원광대 교수(15번),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16번), 백혜숙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전문위원(17번), 김상민 전농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18번), 박은수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19번), 최희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20번) 순이다.

한편, 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한 만큼 이들 후보는 민주당이 아닌 연합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고 총선 후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비례연합정당 내 민주당의 비례대표 몫은 '7석+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병운 기자



Amore
단독 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웨딩



Lobby
넓은 로비, 깔끔한 인테리어로 품격있는 만남의 공간



Fedes
돔 형태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웨딩홀



Parking
넓은 주차장 완비

제아트웨딩컨벤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당신의 특별한날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Wedding Day

결혼식 / 피로연 / 가족행사
기업행사 / 모임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작로 269.
제아트웨딩컨벤션 대표전화 062) 369-5200 / 010-4515-5203